

“선정적 의상 뉴진스”... 끊이지 않는 게임 캐릭터 ‘성상품화’

배틀그라운드-뉴진스 콜라버 일부서 선정적 의상 입혀 공유
서든어택2·아이들프린세스 등 ‘성 상품화 논란’에 서비스 종료
“게임사, 게임성으로 승부하고 소비자는 이용 않는 것이 중요”



배틀그라운드 뉴진스 콜라버 이미지.

/뉴시스

게임 캐릭터의 성 상품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임은 선정성이 아닌 게임성 그 자체로 승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와 뉴진스의 콜라버 이벤트를 진행했다. 크래프톤에 따르면 양사의 협업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고, 팬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겠다는 목적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캐릭터 성 상품화 문제가 터졌다. 뉴진스의 외모로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게임 아이템 상품이 판매되면

서 일부 이용자들이 뉴진스 캐릭터에 선정적인 의상을 입힌 게시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것이다.

비난의 여론이 일자 크래프톤은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크래프톤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조치 안내’라는 공지글을 통해 “근시일 내로 협업 취지에 맞지 않는 착용 아이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게임 내에서 보다 건전한 환경을 조

성하고, 모든 유저들이 안전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전했다.

게임 캐릭터의 성 상품화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7월 ‘서든어택2’가 공개되자마자 캐릭터 성 상품화 논란이 일었다.

게임에 등장한 캐릭터들의 의상이 선정적으로 묘사된 점이 원인이 됐다. 전

쟁터라는 게임의 상황과 맞지 않게 묘사된 심한 노출 의상, 캐릭터가 짧은 하의를 입고 쓰러졌을 때의 자세 등이 선정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서든어택2’는 선정성 논란이 된 해당 캐릭터들을 삭제 조치했고 결국 3개월 만에 게임 서비스는 막을 내렸다.

2020년에는 모바일 게임이 성 상품화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모바일 방치형 RPG 게임인 ‘아이들프린세스’가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였다. ‘아이들프린세스’는 게임 이용자가 아빠의 역할이 되어 8세 여자아이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이다.

7~8세 여아라는 캐릭터 설정과 맞지 않게 선정적인 옷차림과 더불어 부적절한 캐릭터 발언이 문제가 됐다. 당시 일부 이용자들은 해당 게임의 캐릭터가 “만지고 싶느냐”라는 말을 내뱉기도 했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해당 게임 역시 출시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가장 큰 문제는 성 상품화 문제가 청소년과 밀접하게 연결됐다는 점이다. 이번 배틀그라운드 논란의 대상이 된 뉴진스에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16세, 18세의 미성년자가 존재한다. ‘아이들프린세스’ 게임 역시 성 상품화 논란의 대상이 된 캐릭터 설정 나이는 고작 7, 8세 어린이였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지속되는 게임 캐릭터 성 상품화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게임사가 일부의 남성 유저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게임 캐릭터를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행위를 해왔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게임사들은 게임성으로 승부해야 하지, 여성 캐릭터를 벗겨서 그걸로 사람들의 문제를 끌거나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게임성이 떨어지는 게임을 소비자들이 소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안재선 수습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기업 10곳 중 6곳 “고금리 장기화에 부담”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등 500곳 조사
고금리 대응방안 42% ‘비용절감’ 81% “한은 기준금리 인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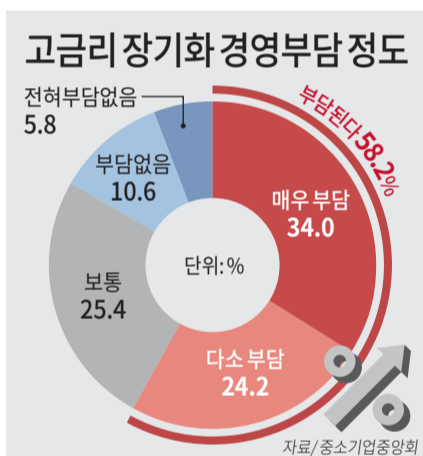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10곳 중 6곳은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3곳은 고금리에 따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0곳 가운데 8곳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500곳을 대상으로 ‘고금리 부담 실태조사’를 실시해 1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고금리 장기화가 ‘부담된다’는 답변이 58.2%(매우 부담+다소 부담)에 달했다. ‘보통’은 25.4%, ‘부담없다’는 16.4%였다. 특히 ‘매우 부담’의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45%로 중기업(17.5%)보다 약 2.5배 이상 높아 규모가 작을 수록 고금리 부담을 더욱 심하게 체감하고 있는 모습이다.

‘고금리 부담 대응방안’ (복수응답)으로는 ▲비용절감(42.4%) ▲대응하지 못



함(30%) ▲저금리 대환대출 활용(20%) ▲금리인하 요구권 사용(11.4%) ▲기타(4.6%) 순으로 많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80.6%가 ‘필요하다’ (매우 필요+다소 필요)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우 ‘매우 필요’ 응답이 57%로 중기업(29.5%)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 중기업에서 금리인하가 ‘필요없다’는 의견은 0.5%에 그쳤다.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응답한 기

업(403개)들이 꼽은 ‘이유’ (복수응답)로는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이 77.4%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물가안정 목표 달성(47.4%), 투자·고용 확대(40.4%)가 뒤를 이었다.

현재 보유 대출잔액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5억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5억원 미만이 91.7%로 대부분이었고, 중기업은 ▲5억원 미만(49%) ▲10억~25억원(16.5%) ▲5억~10억(12%) ▲100억원 이상(9.5%) ▲50억~100억(7.5%) ▲25억~50억(5.5%) 순이었다.

한편 필요 자금 주요 조달원천은 ‘1금융권’ (51.8%)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자체자금(41.8%)이었다.

중기중앙회 이민경 정책총괄실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022년 2분기 말 0.5%에서 올해 1분기 말 1.52%로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고객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은행까지 동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글로벌펀드 운용 VC 15개 선정

1.2조 규모 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글로벌펀드를 운용할 해외벤처캐피탈을 선정하고 1조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모태펀드에서 1500억원의 마중물을 붓는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세계 정상급 벤처캐피탈(VC)을 포함해 총 80개사가 지원한 이번 출자사업은 7.7대1의 경쟁률을 뚫고 15개를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미국 5개, 싱가포르 3개, 영국 2개, 일본 2개, 중국(홍콩 포함) 2개, 아랍에미리트(UAE) 1개 등 다양한 국가의 벤처캐피탈이 운용사로 뽑혔다.

특히 이번에는 글로벌펀드 참여를 희망한 국내 투자자들의 요청을 반영해 ‘해외 벤처캐피탈·국내 벤처캐피탈’ 공동 운영(Co-GP) 트랙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3곳의 국내 벤처캐피탈을 선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글로벌펀드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올라감에 따라 ThirdPrimeCapital(미국), Amadeus(영국), Global Brain(일본), CICC(중국) 등 글로벌 대형 투자사들이 참여한 것도 주목할 점”이라며 “대형 투자사들은 국내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자산운용 규모를 갖고 있어 이를 통한 추가적인 투자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기보-현대엔지니어링, 수출기업 지원 맞손

해외진출기업 금융지원 포괄 협약

기술보증기금이 현대엔지니어링과 수출기업을 돕기위해 손을 잡았다.

기보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회복,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 동반 해외진출기업 금융지원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측이 민관합동협업체계를 구축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적

극 발굴하고,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은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협력업체를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해외동반진출특례보증을 통해 ▲기업당 최대 200억원 보증 지원 ▲보증비율 상향(85%→최대 100%) ▲고정보증료율 0.5% 적용(3년간) 등 다양한 우대사항을 제공한다.

해외동반진출 특례보증은 정부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에 따라 지난해 9월 도입한 해외진출기업 맞춤형 상

품이다. 국내 대기업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해외투자자금보증’과 해외 자회사의 현지 운영을 위한 ‘해외사업자금보증’으로 구성돼 있다.

기보는 지난해 11월 현대트랜시스와 첫 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다른 대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추진해 총 2000억원의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는 해외진출기업의 현안 해결에 적극 앞장서고, 나아가 민관이 협업해 국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사업 추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G마켓 스마일배송 전담

‘3자물류’ 고객사 유치 집중

CJ대한통운이 G마켓의 주문 이튿날 배송 서비스인 ‘스마일배송’의 택배 배송을 전담한다.

이번 G마켓 스마일배송 전담에 이어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의 물류 운영을 확대하며 ‘3자물류(3PL)’ 고객사 유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CJ대한통운은 이달부터 자사 배송브랜드 ‘오네(O-NE)’를 통해 G마켓 ‘스마일배송’ 택배 서비스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고객들이 스마일배송으로 주문하면 CJ대한통운이 택배를 맡는다.

스마일배송은 입점 판매자들의 주문 처리 과정 일체를 담당하는 G마켓의 풀필먼트 서비스로, 월 평균 배송 물량은 250만건 규모다.

CJ대한통운의 스마일배송 전담은 지난달 CJ그룹과 신세계그룹이 맺은 사업 협력의 일환이다. 당시 양 그룹은 온오프라인 물류를 비롯해 식품, 미디어,



CJ대한통운이 7월부터 G마켓 ‘스마일배송’을 담당한다.

멤버십 분야에 이르는 포괄적 협력에 합의했다.

두 그룹의 구상에 발맞춰 CJ대한통운은 신세계그룹 계열사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CJ대한통운이 SSG닷컴 측 배송과 새벽 배송 물량도 상당 부분 담당할 예정이다.

이외에 SSG닷컴이 운영하는 김포네오(NE.O)센터 2곳과 오포에 지은 첨단 물류센터를 CJ대한통운 측에 이관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김승호 기자